2024. 6. 2.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장소: Fellowship Hall)

#### 설교: 임동진

본문: 사무엘상 1 Samuel 9:15-24

제목: 하나님이 높이시다

(표준새번역) 9: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ESV) 9:15 Now the day before Saul came, the Lord had revealed to Samuel:

9: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9:16 "Tomorrow about this time I will send to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d you shall anoint him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He shall save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I have seen[d] my people, because their cry has come to me."

9: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 9:17 When Samuel saw Saul, the Lord told him, "Here is the man of whom I spoke to you! He it is who shall restrain my people."
- 9:18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9:18 Then Saul approached Samuel in the gate and said. "Tell me where is the house of the seer?"
- 9: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 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 9:19 Samuel answered Saul, "I am the seer. Go up before me to the high place, for today you shall eat with me, and in the morning I will let you go and will tell you all that is on your mind.
- 9: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 9:20 As for your donkeys that were lost three days ago, do not set your mind on them, for they have been found. And for whom is all that is desirable in Israel? Is it not for you and for all your father's house?"
- 9:21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9:21 Saul answered, "Am I not a Benjaminite, from the least of the tribes of Israel? And is not my clan the humblest of all the clans of the tribe of Benjamin? Why then have you spoken to me in this way?"
- 9: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 9:22 Then Samuel took Saul and his young man and brought them into the hall and gave them a place at the head of those who had been invited, who were about thirty persons.
- 9: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 두었던 부분을 가져 오게."
  - 9:23 And Samuel said to the cook, "Bring the portion I gave you, of which I said to you, 'Put it aside.'"
- 9:24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 9:24 So the cook took up the leg and what was on it and set them before Saul. And Samuel said, "See, what was kept is set before you. Eat, because it was kept for you until the hour

appointed, that you might eat with the guests." So Saul ate with Samuel that day.

#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구원의 여정과 신앙 생활에 실패, 좌절, 고통, 슬픔, 눈물, 실망이 없는 길은 없습니다. 엄친아, 엄친딸, 금수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니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패와 눈물의 길을 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다. 실패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길입니다.

그 실패와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고, 우리 손을 꼭 잡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 뒤를 봐 주시며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가는 겁니까?

#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 과정에 실패가 있다면, 그 인도의 목적은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9:20b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9:20b ..., for they have been found. And for whom is all that is desirable in Israel? Is it not for you and for all your father's house?"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시기 위해서 사울이 암나귀 찾는데 실패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여러분을 더 멋지게 다듬으시려고 그 실패를 지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은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2:6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 1 Samuel 2:6 The Lord kills and brings to life; he brings down to Sheol and raises up.
- 2:7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 2:7 The Lord makes poor and makes rich; he brings low and he exalts.
- 2:8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 2:8 He raises up the poor from the dust; he lifts the needy from the ash heap to make them sit with princes and inherit a seat of honor. For the pillars of the earth are the Lord's, and on them he has set the world.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시며, 또한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일 권리도 가지고 계시고, 살릴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그분 뜻대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낯추어도 그것이 최선(the best)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 ✓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십니다

두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먼저,

◆ 우리를 높여 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울이 아버지가 시킨 암나귀를 찾으러 헤메고 있을 때, 15 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미리 준비하라고 일러 두셨습니다.

(표준새번역) 9:15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ESV) 9:15 Now the day before Saul came, the Lord had revealed to Samuel:

16 절, 베냐민 지파 사람 중 한 사람을 여기로 인도하여 올 것이니 너는 그 사람을 높이고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라고 조목 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9: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9:16 "Tomorrow about this time I will send to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d you shall anoint him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He shall save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I have seen[d] my people, because their cry has come to me."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난 후 회복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목에서 사무엘처럼 일을 해 주었던 겁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도왔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17 절, 눈앞에 사울이 나타나자 하나님은 직접 콕 찍어 알려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꼼꼼하신 하나님!

> 9:17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9:17 When Samuel saw Saul, the Lord told him, "Here is the man of whom I spoke to you! He it is who shall restrain my people."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비해서, 19 절. 저녁 식사를 할 준비도 해 놓았고, 숙소도 마련해 두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람!

> 9: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바로 내가 그 선견자요. 앞장 서서 산당으로 올라가시지요. 두 분은, 오늘 나와 함께 저녁을 듭시다. 물어 보시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9:19 Samuel answered Saul, "I am the seer. Go up before me to the high place, for today you shall eat with me, and in the morning I will let you go and will tell you all that is on your mind.

여러분이 실패 후에 만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길목마다, 고비마다, 손잡아 주고, 격려하고, 같이 길을 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뿐 아니라, 사실은

◆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기 위한) 준비를 직접 하십니다
 16 절, 이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반복되는 '내가'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9:16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9:16 "Tomorrow about this time I will send to you a man from the land of Benjamin, and you shall anoint him to be prince over my people Israel. He shall save my people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For I have seen my people, because their cry has come to me."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실 때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암나귀를 찾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주변에 선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8 절 선견자를 찾아온 겁니다.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 일, 잃어버린 암나귀에 대해서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 9:18 사울이 성문 안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9:18 Then Saul approached Samuel in the gate and said, "Tell me where is the house of the seer?"

사울의 관심사는 오직 '잃어버린 암나귀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려고 준비하시지만, 정작 우리들은 자기의 잃어버린 암나귀에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롬 5:8 절, '죄인'은 단순히 나쁜 짓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조금 윤리적일수도 있고, 착한 일 몇 가지 하는, 무엇이 죄인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직접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표준새번역) 로마서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ESV) Romans 5:8 but God shows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그리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 ✓ 하나님이 (친히) 기다리십니다

(표준새번역) 이사야 30:18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ESV) Isaiah 30: 18 Therefore the Lord waits to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exalts himself to show mercy to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those who wait for him.

은혜,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실패하고 거절당한 아픔을 아직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외롭고 눈물로 밤을 지세우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과 하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20 절, 잃어버린 암나귀들만을 찾고 있던 사울이 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그 왕의 자리를 주시려고.

> 9:20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 >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9:20 As for your donkeys that were lost three days ago, do not set your mind on them, for they have been found. And for whom is all that is desirable in Israel? Is it not for you and for all your father's house?"

21 절, 사울이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 9:21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9:21 Saul answered, "Am I not a Benjaminite, from the least of the tribes of Israel? And is not my clan the humblest of all the clans of the tribe of Benjamin? Why then have you spoken to me in this way?"

22 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30 명쯤 되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초대해서 사울을 위한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9:22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초대받은 사람들의 윗자리에 앉혔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른 명쯤 되었다.

9:22 Then Samuel took Saul and his young man and brought them into the hall and gave them a place at the head of those who had been invited, who were about thirty persons.

23 절, 미리 요리사에게 사울에게 줄 특별한 음식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9:23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일렀다. "내가 자네에게 잘 간수하라고 부탁하며 맡겨

두었던 부분을 가져 오게."

9:23 And Samuel said to the cook, "Bring the portion I gave you, of which I said to you, 'Put it aside.'"

24 절, 넓적다리는 가장 어른이 먹는 부위입니다. 거기 초대받아 온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특별히 챙겨준 가장 높은 사람이 먹는 음식과, 그 음식을 먹는 젊은 청년 사울을! 하나님은 사울을 높이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 9:24 요리사가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으니, 사무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앞에 놓고 드십시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9:24 So the cook took up the leg and what was on it and set them before Saul. And Samuel said, "See, what was kept is set before you. Eat, because it was kept for you until the hour appointed, that you might eat with the guests." So Saul ate with Samuel that day.

사울은 하나님 생각은 1 도 안하고, 하나님 나라 일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앞에 펼쳐진 일에 매여,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실패하면서. 불안해 하면서.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나가는 여인들의 도움으로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14 절, 산당으로 올라가는 사무엘을 만난 것은 우연도 아니고, 사울의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9: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9:14 So they went up to the city. As they were entering the city, they saw Samuel coming out toward them on his way up to the high place.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세상의 암나귀를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보여주시려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러분에게 하늘 평안을 주시려고, 실패하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집나간 아들의 비유처럼, 매일 집앞에 나와 멀리 내다보는 아버지처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 기도: 하나님 앞에서 21

→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나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앗아버린 그 세상 일은

- 무엇입니까? 자꾸 실패하고 계속 상처 받는 그 '잃어버린 암나귀' 문제를 해결하여 주소서.
- →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구원,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하늘 평안, 여러분을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해 주소서.